

마에스트로 김홍재 광주시향 오나

관심을 모았던 차기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 지휘자로 김홍재 현 울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문예회관은 1일 "단원들의 투표를 거쳐 후보에 오른 김홍재 지휘자 위촉을 놓고 후보자 추천 청빙위원회에서 후보 검증과 위촉 조건 등을 포함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회관 측은 오는 16일 마지막 청빙위원회를 열고, 위촉 여부를 최종 확정할 후 바로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지난 12월말 상임 지휘자가 퇴임하면서 국내외 지휘자를 대상으로 신임 지휘자를 물색해 온 회관측은 김 지휘자가 현재 울산시향을 맡고 있는 점을 감안,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김 지휘자가 울산시향 측에 "이번 임기만 채우고 떠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울산 지역 언론이 이를 보도하면서 '광주행'이 기정사실되는 분위기다. 김 지휘자는 지난 2007년부터 9년간 울산시향을 이끌어왔으며 오는 10월말로 임기가 끝난다.

이번 광주시향 지휘자 선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공개 모집,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지휘자를 위촉하던 방식 대신 단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청빙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 단원들과의 불화로 불명예 퇴진한 루드비히 시레에서 보듯 교향악단 운영에 단원들과의 호흡



**현 울산시향 상임 지휘자 10월 임기 끝나
청빙위서 위촉 조건 협의중...16일 확정
광주시향 40주년 도쿄 연주 등 깊은 인연**

**일본 출생 조선인의 삶...윤이상에 사사
1979년 평양서 조선국립교향악단 지휘도
2005년 한국국적 취득...울산시향 위상 높여**

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감안한 선택이었다.

회관측은 문예예술회관 노조와의 단체 협약에 따라 교향악단과 시 추천 인사 각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단원 추천 등으로 상임지휘자 후보에 오른 사람은 모두 7명. 예전에 광주시향 상임지휘자를 맡았던 이를 비롯해 한국인 3명과 중국, 러시아, 영국 등 외국인 지휘자 4명이 후보였다. 이후 단원들 1, 2차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김홍재 지휘자와 러시아 출신 디야디오우라 니콜라이가 청빙위원회에 추천됐다. 청빙위원회에

서도 김 지휘자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오고, 니콜라이가 기존 스케줄 등으로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회관측은 위원회 의견대로 김 지휘자와 위촉 조건 등을 논의해왔다.

김 지휘자는 광주시향과 몇차례 인연이 있다. 지난 6월 30일 도쿄 예술극장에서 열린 광주시향 4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 등을 연주, 호평을 받았으며 일본 공연 전에는 광주문예회관에서도 공연을 가졌다. 또 지난 2013년 5월에도 바그너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서곡,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3번' 등을 함께 연주한 적이 있다.

김 지휘자 위촉 조건은 울산 시향 계약 조건과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계약이 완료되면 오는 1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김 지휘자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인물로도 유명하다. 1954년 일본 효고현에서 태어난 그는 오랫동안 '무국적 조선인의 삶'을 살아왔다. 조선민족학교를 졸업하고 도호대학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를 사사했으며 1978년 도쿄 시티필과의 특별 연주회로 데뷔한 뒤 1979년에는 평양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을 지휘했다.

1989년에는 독일에서 윤이상을 1년간 사사했으며 1990년 평양 범민족통일음악회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윤이상의 곡을 공연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김 지휘자는 울산시향을 9년간 맡아 100회에 달하는 공연을 지휘했으며 캐나다와 미국 카네기홀 초청 공연, UN 평화 콘서트 등 국제무대 연주회를 통해 울산시향의 위상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문예회관 관계자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로 위촉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 위촉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는 16일 청빙위원회를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설백심



와온

송기진 보성담병이 재현전

3~12일 서울갤러리 민

송기진 보성담병이문화복원연구원이 서울 갤러리민에서 3~12일 '제19회 송기진 보성담병이 재현전-조선 사그막의 백자연금술 보성담병이를 만나다'전을 연다. 보성담병이는 조선시대 보성, 고흥, 장흥을 중심으로 탄생한 우리나라 고유 도자 제작 기법이다.

조선 조정이 민간에서 백자 제작과 사용을 금하자 백성들은 백자가 아닌 백자를 제작하려 시도했다. 하얀 흙인 백토니를 이용하는 백자와 달리 보성담병이는 검붉은 흙을 이용하는게 특징이다. 조별구이를 한 다음 백토물에 '담병' 담그며 흰색을 입히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송 원장은 옛방식대로 충실하게 제작한 다기, 사발, 항아리 등 작품 100여점을 선보인다. '설백심'(雪白心)은 15세기 조선시대에 제작된 초벌담병이 사발을 재현한 작품이다.

'와온'(瓦溫)은 달항아리 작품이다. 순백으로 뒤덮인 여느 백자 항아리가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라면 보성담병이 항아리는 포근해 보여 편안함을 전해준다.

송 원장은 천한봉, 조기성 선생을 사사하고 지난 17년간 보성담병이를 재현, 연구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중국 베이징 798예술구 백합자(白盒子)갤러리에서 '한민족의 독창적 도자제작기법, 보성담병이 발표전'을 열 예정이다. 문의 02-546-5772.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이상렬 유고시집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운' 발간

'유고 시집'은 그 자체로 애잔한 느낌을 준다.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시인이든,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든, 마지막 시집이라는 점에서 는 동일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2014년에 타계한 원도 출신 이상렬 시인의 유고시집 '보이지 않아도 아름다운'(문학들에는 죽음을 눈앞에 둔 시인의 내밀한 고백이 담겨 있다. 시인은 이 세상에 없지만 시집 속의 화자는 여전히

히 살아 독자들을 향해 말을 걸어온다. 이 시인은 지난 2007년 55세라는 늦깎이로 '문학예술'로 등단했다. 문학과 거리가 먼 분야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시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다.

모두 72편이 수록된 이번 시집에는 시와 산, 음악을 좋아했던 시인의 삶이 담겨 있다. 또한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기억과 망각 등을 소재로 한 시도 서정적



가까이 펼쳐 온다// 꽃이 피기 시작하구나 // (종려) // 나는 이제 나를 떠난다 " '해돋이'라는 시에는 죽음을 목전에 둔 이가 지닐 수 있는 겸허와 예지가 깃

으로 형상화돼 있다.

"북 치는 아이들의 손 떨림이 파르스름하다/ 작고 큰 북들이 연이어 울려든다/ 그리고 드문드문 짐을 치며

들어 있다. 채움과 비움의 이미지, 삶을 바라보는 관조의 시선도 투영돼 있다. 이 시인은 마지막 말에서 "긴 여정을 보내다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일까"라면서 "나를 싣고 그곳에 갈 새벽 첫 배를 기다린다"고 읊조린다.

관련 이 시인은 한국외국어대 아랍어과를 졸업했으며 시집 '서석대의 빛과 그늘'(공저) 등을 펴냈다. 2011년 '이순남, 이상렬 詩의 房'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2016 광주·전남 특' 지역 문인 작품 전시회

31일까지 전남대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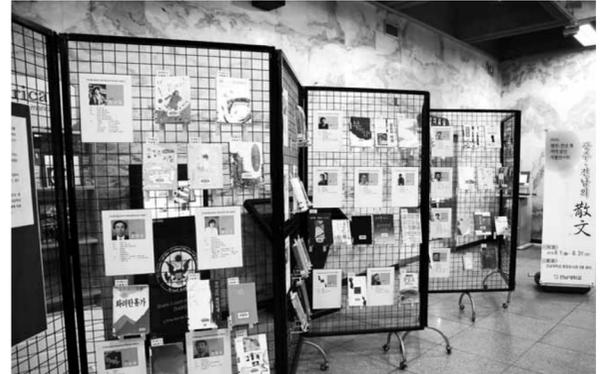
범 시도민 독서운동 '2016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이하 광주·전남 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남대는 오는 31일까지 도서관 2층 로비에서 '2016 광주·전남 특 지역 문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의 산문(散文)'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광주·전남 지역의 소설가, 평론가, 희곡작가 70명의 작품집 150여 권을 선보인다. 이정준의 '당신들의 천국', 송기숙의 '복두장군', 조정래의 '태백산맥', 한승원의 '아재이제 바라야제',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 임철우의 '봄날'과 같은 소설뿐 아니라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에 빛나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평론으로 김현의 '상상력과 인간', 김우창의 '깊은 마음의 생태학'과 희곡에 차별성 '산발', 한옥근의 '외다리 꼴뚜기' 등도 전시된다. 또한 영화나 연극으로 제작된 작품의 포스터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일환도 도서관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광주·전남의 문학과 문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530-3533.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도서관이 '2016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 행사 일환으로 31일까지 개최하는 '2016 광주·전남 지역문인 작품 전시회-광주·전남의 詩' 장면.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평균작업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